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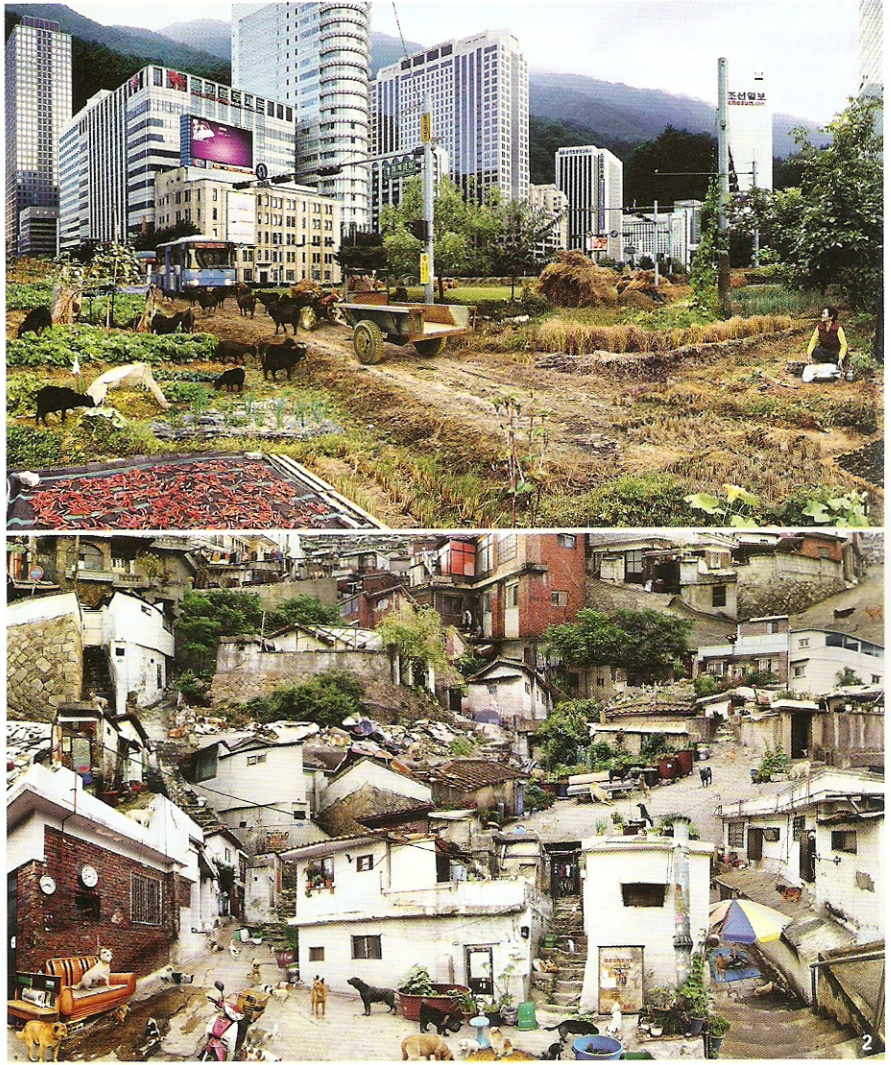
내일, 그리고 언제나 내일

원성원 전_Tomorrow | 3.7~4.4 | 대안공간 루프

작가 원성원이 서울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필자는 그 동안 여러 기획전을 통해서 그녀의 작품들을 보아왔다. 개인사적인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전달하면서도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려주는 그녀의 드로잉들과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합성사진들의 조합은 이미 친근한 이미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인전에서 서로 협동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드로잉들과 사진들은 여러 편의 옴니버스식 구성처럼 다채롭고 여러 층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 사진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드로잉은 그 내러티브의 구성요소들을 파편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그녀의 작품은 이야기의 기원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퍼즐놀이다.

그녀의 합성사진은 언제나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유치하게 조합되었지만, 전혀 어색한 구석이 없어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진다. 처음 작품을 접했을 때 다가오는 이러한 낯설음은 작가의 꿈과 깊은 연관이 있다. 명랑하고 유쾌 발랄하게 작품을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녀는 너무나도 기괴한 꿈을 많이 꾸다고 한다. 디지털 프린트 위에 집약적으로 그려 넣은 기괴한 드로잉 작품들이 아마도 그녀가 꾸었던 꿈의 파편들이나 것이다. 기괴한 꿈을 꾸는 것과 더불어 현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공상을 하는 그녀는 이번엔 꿈과 다르게 논리적인 상상을 시도하였다. 작가의 상상 속에서 유평하던 이미지들은 현실로 내려와 선형적인 순서를 갖는다. 그리하여 작품의 낯선 공간은 자연스럽게 현실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작가가 꾸는 꿈의 파편들은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의 조합이든 낯설다. 그리고 또한 작가의 상상은 이미 상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공간에서 조합되는 것임에 너무나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즉, 허구와 현실을 넘나든다. 그녀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되는 특징은 고난이도의 합성사진에 고스란히 표현된다.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합성, 예를 들어 전시장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라이트박스 속의 두 작품들은 아마도 자연이라는 외부와 편안한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과 거대한 바다 속 작은 인간의 모습을 실내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규정지면서 안과 밖을 하나로 만들었음을 일깨 해준다. 이러한 개념적 특징은 다른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매우 논리적인 낯설음의 표현이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논리적인 상상과 기괴한 꿈의 접촉처럼 말이다.

이러한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며 전시를 관람하던 차나, 필자의 두 눈에 수많은 사진액자들이 들어온다. 그 작은 액자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사진 옆에 붙여있는 간결한 텍스트들이 있다. 가만히 보니, 그것은 작가가 합성에 사용한 사진들의 일부분이고, 텍스트들은 작품들이 지니는 하나하나의 설명 자료들임을 알 수 있다. 쉬이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이 텍스트들은 역시나 합성된 공간들이 지니고 있던 개별적인 고유한 이야기들이다. 먼저, 〈사과 엄마와 빙어 아빠〉는, 아빠의 오랜 유학생활로 인하여 아빠를 낳아버리는 딸의 이야기이다. 딸은 서서히 아빠에게로 다가갈 준비를 하는데, 가을과 겨울이 하나의 풍경이 된 이 작품은 풍경의 상징만 클이나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많았다. 딸이 들고 있는 사과와 사과 엄마의 딸이라는 당연한 논리를 말하듯이 말이다. 〈종로구 생백리 이야기〉는 언뜻 유토피아처럼 도시와 시골 그리고 아름다운 산세가 기묘하게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지만, 경운기를 몰고 가던 남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일어난 해프닝을 슬픈 반전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듯 작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 작품에게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시공간을 부여함으로써 논리적인 상상력과 기괴함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을 유발한다. 특히 〈강아지 마을〉에서는 얼마든지 독자적일 수 있는 강아지들의 근본적 존재에 대한 성찰은 작가의 낯설음의 실제 경험을 근거로 표현된 듯하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입가의 웃음을 멈추지 못했던 이 작품에서는 왜 작가가 끊임없이 논리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그것은 아마도 시간적 개념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에 종속되지 않고 어디서든 편안하고 푸근한 시선들을 여기저기 작가의 생활 속에서 끌어올 수 있는 작가의 여유와 재치 때문인 것 같다. 물론 다음 전시에서 여전히 이러한 생기발랄함이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상상의 낯설음에 현실적 논리를 합성하고자 하는 유틘들이 계속 보여졌으면 좋겠다.



1. 〈Tomorrow_강아지 마을〉

라이트젯 프린트 120×200cm 2008

2. 〈Tomorrow_종로구 생백리 이야기〉

라이트젯 프린트 120×200cm 2008